

##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

- 「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」 착수보고회 개최 -

-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6월 26일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「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」 착수 보고회에 참석했다.
  - 정부는 「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2026~2030)」에서 ‘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’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,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.
-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개발협력 규모의 확대와 사업 다변화, 민간·기업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
  - 반면,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의 직무 특성과 경력개발 경로, 인력 현황 및 활용 여건 등에 대하여,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경력개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  - 이에 따라,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양성 및 활용체계 구축 필요성을 「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」에 반영한 바 있다.
- 이번 연구는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며,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무 특성 및 인력수급 현황을 분석하고, 전문인력 양성·활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착수보고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 현장 전문가와 학계,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여 연구 추진방향과 정책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- 참석자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**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경력개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**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.
-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국장(권용식)은, “국제개발협력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와 글로벌 협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정책 분야”로서, “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은 사람과 전문성에 기반한다,”고 강조하면서,
  - “이번 연구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인력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,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국	책임자	국 장 권용식 (044-200-2146)
		담당자	사무관 곽현진 (044-200-2161)

